

# 대학생의 현장실습교육 경험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및 융합역량 비교

송윤희\*  
안양대학교 교양대학

## Comparing Levels of College Student's Communication 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Convergence Competency according to Their Field Experiences

Yun-Hee Song\*  
College of Liberal Arts, Anyang University

**요약** 최근 현장실습교육은 대학생의 직무경험과 경력개발을 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현장실습교육 참여가 기업에서 필요한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및 융합역량을 향상시키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수도권 A대학교의 재학생 1,887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현장실습교육 참여 빈도에 따라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및 융합역량 수준 차이가 유의미하게 있었다. 이는 현장실습교육 참여 빈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및 융합역량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현장을 경험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장실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대학에서 증대되는 현장실습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향후 현장실습교육 설계 및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 대학생, 현장실습교육,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융합역량

**Abstract** Recently, colleges and universities provide programs of field experience for students to improve career development skill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participating field experience on communication 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convergence competence. Data were collected from 1,887 college students, and were analyzed using one-way ANOVA. As a result, students who participated field experience program improved their communication 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convergence competence.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tilized as basic references to promote field experience program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Key Words** : College student, Field experiences, Communication 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Convergence competency

### 1. 서론

최근 직업은 점점 다양화되어지고 전문성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대학생들

은 자신의 적성, 흥미, 능력에 맞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본연의 기능뿐만 아니라 학생의

진로와 취업에 대한 상담 및 지도라는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1]. 따라서 대학은 커리어개발센터, 창업센터 등을 중심으로 점점 취업이 어려워가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취업률을 높이는 것은 그리 녹록치 않다.

하지만 이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상황과 달리 중소기업 등에서는 인력의 수급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2]. 이는 기업 현장에서는 직무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지만 그에 맞는 인재를 만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제 대학도 취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현재의 교육내용, 교수학습방법 등을 재검토하고 직무현장과의 연계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최근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현장실습은 학교교육과 직무경험을 연결하여 대학생이 현장에서 상황적 지식을 습득하고 취업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고용의 기회도 제공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3]. 대학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해 1900년대 초부터 관심을 가져왔던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산학협력 등은 2000년대에 들어와 활성화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대학에서 수행되는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다양한 효과성 연구가 진행되어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이 진로준비 및 실무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에서의 직무만족 및 향상과 연관이 있는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및 융합능력이 현장실습교육에 의해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및 융합능력은 직업기초역량이자 직무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본 연구문제는 ‘대학생의 현장실습교육 경험에 따라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및 융합역량에 차이가 있는가?’이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 대학에서 증대되는 현장실습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향후 현장실습교육 설계 및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2. 관련 연구

### 2.1 현장실습교육

현장실습교육이란 학생, 기업, 학교가 함께 수행하는 산학협력교육으로 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기술을 현장에서 직무를 통해 체험하는 교육제도이다[4]. 현장실습교육은 샌드위치 프로그램(Sandwich Program), 코업 프로그램(Co-op Program), 인턴십(Internships) 등 다양한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현장실습교육은 직접 장인을 통해 현장에서 실습하는 중세시대의 도제제도에서 유래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교육 형태로 발전된 것은 1906년 미국 신시내티(Cincinnati) 대학의 Herman Schneider에 의해 시작되었다[2,4].

현장실습교육은 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장실습교육은 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직무에 참여함으로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한다. 또한 현장실습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실무역량, 진로동기(진로탄력성, 진로통찰력, 진로정체성)를 비교한 결과, 현장실습교육 경험 집단이 현장실습교육이 없는 집단보다 실무역량과 진로동기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 이는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직업탐색 활동에 더욱 적극적이며 직업에 대해 현실적으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은 직무경험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검증하고 확보함으로써 채용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높일 수 있다[2,6].

### 2.2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직업기초역량 중 하나로 미래에 직업을 갖게 되는 대학생의 핵심적인 기초능력이다[7].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기업의 대학교육에 대한 요구조사를 기초하여 대학생 핵심역량(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 Assessment: K-CESA)을 개발하였으며 그 하위구성 요소는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자원·정보·기술의 활용능력, 자기관리 역량, 글로벌 역량, 종합적 사고력이다[8].

대학졸업자 769명을 대상으로 직업기초역량교육과 취업여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의사소통능력과 분석능력이 취업 여부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토대로 할 때 대학교육에서 집중적으로 의사소통능력과 분석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9]. 또한 의사소통은 기업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로 기업현장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의 차원에서 건강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10]. 이와 같은 기업현장의 상황을 기반으로 할 때, 미래의 기업인재인 대학생들이 길러야 할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가 의사소통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 2.3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능력 또한 의사소통능력과 같이 대학생 핵심 역량으로 구분된다[8]. 대인관계능력은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직무현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

의사소통능력은 개인이 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구성원과 협력하게 하는 능력이자 신뢰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직무현장에서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동료와의 신뢰가 향상되며 직무만족도도 높다[11]. 또한 대인관계능력과 직무스트레스와 관계를 살펴본 연구결과에서는 대인관계능력이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업무량, 고객관계, 전문직 역할갈등, 업무외의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맺었다[12]. 이는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개개인의 사회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인관계능력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기업의 미래 인재로서 대학생들이 대인관계능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인관계능력은 개인의 자질, 성격, 환경 등에 따라 결정되며 쉽게 바꾸기 어려우므로 대학 때부터 현장실습교육 등을 통해 기업의 조직을 이해하고 다양한 상황가운데에서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 2.4 융합역량

융합역량은 학제 간의 연구를 통해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발견 및 해결하며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13]. 국내 중소기업의 융합동향을 살펴보면, 자동차, 의료, 의류, 인쇄 및 출판, 건설 등의 분야에서 기술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재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융합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임직원들 또한 융합역량을 강화하고자 관련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14]. 기업 내에서의 융합역량은 신제품, 새로운 서비스, 신시장 창출 및 중소기업의 기술향상을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향후 지식융합사회에서는 개별적인 지식과 사고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기에 학제 간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

학생들 또한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맞춰 서로 다른 분야의 것을 연결하는 융합적 사고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 A대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과 결측치를 포함한 응답을 제외한 1,887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888(47.1%), 여학생이 999명(52.9%)이었고, 1학년 502명(26.6%), 2학년 520명(27.6%), 3학년 481명(25.5%), 4학년 384명(20.3%)으로 나타났다. 계열별 분포는 인문계열이 428명(22.7%), 사회과학계열이 478명(25.3%), 이공계열이 683명(36.2%), 예체능계열이 298명(15.8%)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평균 나이는 20.9세로 대부분 만 18~26세에 분포되었다.

### 3.2 측정도구

#### 3.2.1 현장실습교육 경험

본 연구에서 현장실습교육 경험은 전공의 현장실습의 경험 여부를 빈도로 측정하였다. 빈도는 현장실습 없음, 1회, 2회, 3회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현장실습교육 빈도에 따라 네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3.2.2 의사소통능력

본 연구의 의사소통능력은 다양한 언어적, 비언어적 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설득하며,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여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의사소통능력 측정은 Kim, Han과 Won의 도구를 활용하였다[15]. 총 17개 문항으로, 문항의 예는 '나는 상대방이 말하는 핵심을 잘 파악할 수 있다', '나는 글의 숨은 의미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나는 다양한 표현으로 나의 생각과 의견을 말로 전달할 수 있다', '나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나는 소통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 원인과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등이다. 의사소통능력 측정문항의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Cronbach  $\alpha$ )는 .92로 높았다.

### 3.2.3 대인관계능력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능력은 타인에 대한 배려 및 이해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대인관계능력 측정은 A대학교에서 3,669명의 대학생 자료를 대상으로 개발된 대학생 핵심역량 측정도구 중 대인관계능력 문항을 활용하였다[16]. 총 4문항으로, 문항의 예는 ‘협력하여 일을 진행할 때, 팀 안에서 나의 역할과 임무를 잘 파악할 수 있다’, ‘나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한다’ 등이다. 대인관계능력 측정문항의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Cronbach  $\alpha$ )는 .83으로 양호하였다.

### 3.2.4 융합역량

본 연구의 융합역량은 전공에 대한 전문성과 타 학문에 대한 이해 및 개방적 태도를 바탕으로 여러 분야의 지식 및 기술을 통합하여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융합역량 측정은 A대학교에서 개발·검정한 대학생 핵심역량 측정도구 중 융합역량 문항을 활용하였다[16]. 총 8문항으로, 문항의 예는 ‘나는 전공과 여러 분야의 정보 및 지식을 통합적으로 활용한다’,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다’ 등이다. 융합역량 측정문항의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Cronbach  $\alpha$ )는 .80으로 양호하였다.

위의 모든 측정도구는 교육학 및 심리학 전공 교수자 6명에게 내용타당도를 확인하고 35명의 대학생의 안면타당도를 받았다. 사용된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1점 : 전혀 아니다, 5점 : 매우 그렇다)를 활용하였다.

## 3.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대학생들의 현장실습교육 경험을 마치는 2016년 2학기 말에 수집되었다. 현장실습교육 경험 빈도에 따라 경험 없음, 1회 경험, 2회 경험, 3회 경험 이상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평균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집단별 평균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적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21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으며 통계적 검증을 위한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현장실습교육 경험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비교

현장실습교육 경험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을 비교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Table 1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F = 175.532$ ,  $p < .000$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F$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검증(Scheffe's test)을 실시한 결과, 현장실습교육 경험없음 집단과 1회 경험의 집단보다 2회 경험 집단의 의사소통능력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회 경험 집단보다 3회 이상 경험 집단의 의사소통능력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The difference in communication ability levels according to field experiences

		Communication Ability	F
No experience (n=201)	M SD	3.26 0.53	175.532***
1 time (n=822)	M SD	3.34 0.43	
2 times (n=690)	M SD	3.64 0.48	
More than 3 times (n=174)	M SD	4.15 0.63	
No experience, 1 time < 2 times < More than 3 times			

\*\*\*  $p < .001$

### 4.2 현장실습교육 경험에 따른 대인관계능력 비교

현장실습교육 경험에 따른 대인관계능력을 비교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Table 2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F = 102.838$ ,  $p < .000$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F$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검증(Scheffe's test)을 실시한 결과, 현장실습교육 경험없음 집단과 1회 경험 집단보다 2회 경험

Table 2. The difference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levels according to field experience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F
No experience (n=201)	M SD	3.57 0.65	102.838***
1 time (n=822)	M SD	3.57 0.57	
2 times (n=690)	M SD	3.87 0.56	
More than 3 times (n=174)	M SD	4.15 0.62	
No experience, 1 time < 2 times < More than 3 times			

\*\*\*  $p < .001$

집단의 대인관계능력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회 경험 집단보다 3회 이상 경험 집단의 대인관계능력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3 현장실습교육 경험에 따른 융합역량 비교**

현장실습교육 경험에 따른 융합역량을 비교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Table 3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F=170.366, p < .000$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F$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검증(Scheffe's test)을 실시한 결과, 현장실습교육 경험없음 집단보다 1회 경험의 집단의 융합역량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1회 경험 집단보다 2회 경험 집단의 융합역량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회 경험 집단보다 3회 이상 경험 집단의 융합역량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difference in convergence competency levels according to field experiences

		Convergence Competency	$F$
No experience (n=201)	<i>M</i>	3.08	170.366**
	<i>SD</i>	0.60	
1 time (n=822)	<i>M</i>	3.23	
	<i>SD</i>	0.48	
2 times (n=690)	<i>M</i>	3.55	
	<i>SD</i>	0.51	
More than 3 times (n=174)	<i>M</i>	4.12	
	<i>SD</i>	0.75	
No experience < 1 time < 2 times < More than 3 times			

\*\* $p < .001$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현장실습교육 참여가 기업에서 필요한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및 융합역량을 향상시키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현장실습교육 경험없음, 1회 경험, 2회 경험, 3회 경험 이상으로 집단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과 융합역량에서 모두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현장실습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및 융합역량이 향상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현장실습교육은 기업조직 내에서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킨다. 의사소통은 일반적으로 듣기와 읽기의 수용력, 말하기와 듣기의 전달력, 토론과 중재의 조정력 등으로 구분되며 기업조직 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개개인의 업무능력을 높이고 조직의 생산력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장실습교육이 직무현황에서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마련해줌으로써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둘째, 현장실습교육은 직무현장에서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직장에서 동료, 상사 등과 긍정적이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으면 개인과 조직의 성장에 도움을 주지만, 적절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조직 내에서 고립되며 사회생활의 적응이 쉽지 않게 된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장실습교육은 기업조직 내에서 인간관계를 살펴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셋째, 현장실습교육을 통해 융합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최근 지식융합사회로의 진입은 인문학 과 자연과학의 융합, 전문지식과 IT의 융합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기업현장은 다양한 융합이 일어나는 곳으로 전공지식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 따라서 현장실습교육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학제 간의 통합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게 될 것이다.

향후 현장실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 학교, 학생들이 긴밀하게 연계되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종종 기업에서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구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이나 지도사원(멘토) 지원 등이 부족할 때가 많다. 특히, 대학이나 관련 기관에서는 대학 근교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현장실습매뉴얼이나 시행지침서 등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계하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양적 연구로 현장실습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기 어려웠으므로 향후 인터뷰, 관찰 등을 통해 실제적인 사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학교 중심의 현장실습 연구에서 벗어나 기업차원에서의 현장실습 효과성 연구, 직무능력표준(NCS)의 항목에 따른 연구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표의 다양화를 통해 비교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W. S. Jang, "An Exploration on the Changes of College Students' Labor Market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23, No. 1, pp. 103-118, 2004.
- [2] E. T. Hwang, C. W. Lee and J. Y. Lew, "A Human Resource Staffing Program of SMEs through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Vol. 38, No. 1, pp. 49-85, 2016.
- [3] T. N. Garavan and C. Murphy, "The Co-operative Education Process and Organisational Socialisation: A Qualitative Study of Student Perceptions of Its Effectiveness," *Education+Training*, Vol. 43, No. 6, pp. 281-302, 2001.  
DOI : 10.1108/eum000000005750
- [4] J. Y. Lim, *A Meta-Analysis of Effectiveness of Co-op Education Progra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16.
- [5] J. You and Y. Song, "Comparing Latent Means on Job Competencies, Career Resilience, Career Insight, and Career Identity of Groups with and without Field Experience,"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30, No. 1, pp. 183-202, 2007.
- [6] W. J. Wessels and G. E. R. A. L. D. Pumphrey, "The Impact of Cooperative Education on Wages," *Journal of Cooperative Education*, Vol. 32, pp. 36-51, 1996.
- [7] M. Jin, Y. Sohn and H. Chu, "A Study on Development Plan of K-CESA for College Education Assessment,"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 29, No. 4, pp. 461-486, 2011.
- [8] J. I. Lee and J. H.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Essential Skills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31, No. 2, pp. 227-246, 2012.
- [9] W. S. Seung and S. N. Park, "The Effects of Self-efficacy, Basic Job Competencies, and Job Preferences on Employment Probability of College Graduate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34, No. 6, pp. 93-113, 2015.
- [10] S. H. Park and M. H. Yon, "Effectiveness of Communica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on Communication 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ress & Job Satisfaction: Focused on Corporate Environment,"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0, No. 2, pp. 887-910, 2009.
- [11] K. I. Choi, "The Paths of the Effect of School Social Workers' Interpersonal Relationship on Job Satisfaction: Mediative Effect of Trust and Collaboration between School Social Workers and Teacher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 12, No. 1, pp. 145-164, 2010.
- [12] J. M. Lee,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 and Communication Skills of Occupational Therapists on Their Work,"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gnitive Rehabilitation*, Vol. 2, No. 1, pp. 81-97, 2013.
- [13] H. Hong and J. Lee, "The Study on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in the Course of a Liberal Education to Enhance Creative and Integrated Thinking Competenc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9, No. 3, pp. 163-192, 2015.
- [14] J. W. Han, K. M. Park and H. S. Lim, "Capacity Building Measures of SMEs Employee for Spreading the Creative Economy: For focus on Excavation of Convergence Projec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6, pp. 607-614, Jun. 2014.  
DOI : 10.14400/jdc.2014.12.6.607
- [15] J. Kim, S. Han and M. Won, "Invention of the Self-appraisal Model for Assessing Communicative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Rhetoric*, Vol. 23, pp. 389-422, 2015.
- [16] Y. Song and J. You, *A Revised Version of Core Competence Scale for College Students*, Anyang University.

저 자 소 개

송 윤 희(Yun-Hee Song)

[정회원]



- 2007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석사
- 201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박사
- 2007년 7월 ~ 2010년 6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원

▪ 2011년 3월 ~ 2013년 2월 : 한밭대학교 교양학부 강의 전담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안양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관심분야> : 융합교육, 집단지성, 스마트러닝